

초연결 해사환경 시대, 바다에서의 사이버안전 대응 강화한다

- 5. 19.(화) 부산에서 전문가 포럼 개최, 최신 정책·기술 등 공유
【관련 국정과제】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5월 19일(화)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양산업 분야 사이버안전의 현재와 미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해사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 저궤도위성 통신서비스의 확산으로 선박에서도 육상과 유사한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서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박과 항만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운영기술(OT)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선박운항 환경도 조성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사이버 공격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해운·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해사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사산업의 디지털화와 초연결 확산으로 사이버안전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사산업의 사이버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국가정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담당자	사무관	최종영 (051-773-5818)